

미국 주(州)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감독체계 동향¹⁾

※ 미국의 보험산업은 보험회사 현황 및 감독규정 등 제반 요건이 주별로 상이하여 주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

□ 주(州)별 수입보험료 내역

- 각 주의 수입보험료 내역을 보면, 건강보험이 43.2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, 다음으로 생명보험/연금인 30.5%, 손해보험이 25.1%를 차지
- 2014년 구성비와 비교 시,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비중은 축소되고 건강보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

* 2014년: 건강보험 38.6%, 생명보험/연금 33.0%, 손해보험 27.4%

[표1] 미국 주별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(2022년)

(단위: 백만달러)

주	수입보험료	점유율	생명보험/연금		손해보험		건강보험	
캘리포니아	374,616	12.0%	70,999	7.4%	89,024	11.3%	212,652	15.7%
뉴욕	265,231	8.5%	138,419	14.5%	52,155	6.6%	72,438	5.4%
텍사스	242,596	7.8%	47,433	5.0%	70,380	9.0%	121,002	8.9%
플로리다	237,209	7.6%	47,068	4.9%	65,677	8.4%	109,147	8.1%
오하이오	142,919	4.6%	63,904	6.7%	20,893	2.7%	57,392	4.2%
펜실베이니아	139,314	4.5%	42,480	4.5%	30,044	3.8%	65,142	4.8%
일리노이	108,365	3.5%	29,124	3.1%	31,404	4.0%	47,835	3.5%
뉴저지	94,876	3.0%	27,551	2.9%	24,441	3.1%	42,093	3.1%
델라웨어	87,446	2.8%	81,173	8.5%	3,505	0.4%	2,650	0.2%
미시간	85,260	2.7%	20,771	2.2%	21,536	2.7%	40,703	3.0%
미국 전체	3,128,658	100%	953,226 (30.5%)		785,807 (25.1%)		1,352,317 (43.2%)	

* 출처: NAIC [2022 Insurance Department Resources Report Volume1 September 2023]

*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가 다른 주보다 유독 높은 것은 다른 주와는 달리 DMHC (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)의 수치가 포함되었기 때문

1) 닛세이기초연구소 「2023년 미국 생명보험시장 현황」(2024.01.22) 을 참고로 작성

□ 주(州)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내역

-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상위 10개주는 전체 수입보험료 상위 10개주와 거의 일치함
- 주별 수입보험료 보종별 내역을 보면 연금 비중이 40.2%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예탁형 상품* 24.5%, 질병/장해 18.4%, 생명보험 16.9% 순으로 이어짐

* 예탁유형에는 고금리 확정형 연금(GIC), 보충보험계약(보험금 지급방법 선택권이 있는 연금계약 등), 확정연금, 배당적립/지급, 기타 예탁펀드가 포함됨

- 또한, 보종별로 강세인 주가 각기 다른데, 생명보험/연금은 캘리포니아, 질병/장해보험은 텍사스, 예탁형 상품은 뉴욕이 가장 시장규모가 큼

[표2] 미국 주별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(2022년)

(단위: 백만달러)

주	수입보험료	구성비	생명보험	연금	질병/장해	예탁형
뉴욕	155,363	13.5%	13,578	31,357	14,482	95,946
캘리포니아	86,917	7.6%	21,170	46,171	15,979	3,596
델라웨어	82,220	7.2%	2,108	3,428	1,031	75,651
오하이오	72,168	6.3%	6,354	16,660	8,273	40,882
텍사스	66,684	5.8%	15,151	28,869	19,486	3,176
플로리다	63,498	5.5%	12,442	33,850	15,886	1,320
펜실베이니아	42,499	3.7%	7,422	23,767	8,778	2,532
뉴저지	37,245	3.2%	8,054	18,187	9,650	1,353
일리노이	36,481	3.2%	8,296	16,887	7,352	3,945
노스캐롤라이나	29,054	2.5%	6,248	14,951	7,111	744
미국 전체	1,149,693		194,170 (16.9%)	462,034 (40.2%)	211,864 (18.4%)	281,624 (24.5%)

* 출처: NAIC [2022 Insurance Department Resources Report Volume1 September 2023]

□ 주(州)별 보험감독규제 체계 및 업무

-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느 주(州)에 본거지*를 두는지, 어떤 형태로 미국 각 주에서 사업 면허를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보험시장의 규모/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규제의 내용도 달라짐

*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주를 본거주(州), Domiciled State

해당 주가 본거주인 보험사를 **주내(州內)보험사**, 해당 주에서 사업면허를 취득했으나 다른 주가 본거주인 보험사를 **주외(州外)보험사**라고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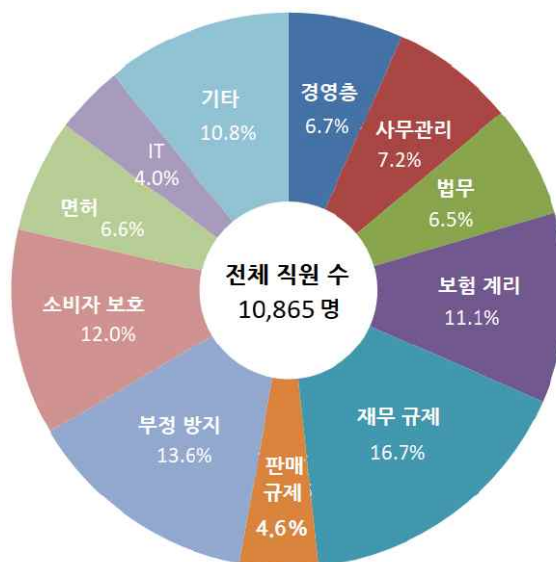
- 통상적으로 주외보험사의 감독은 해당 보험회사의 본거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, 주내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

□ 보험감독청 업무별 조직 구성

- 미국 전역의 보험감독관청의 직원 수는 2022년 말 기준 10,865명이며 부문별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음

- 재무규제, 부정 방지, 소비자 보호, 보험계리 부문 비중이 큼

[그림1] 주(州) 보험감독청 부문별 인원 구성비 (2022년 말 기준)



* 출처: NAIC [2022 Insurance Department Resources Report Volume1 September 2023]

□ 재무건전성 규제

- 각 주의 보험감독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에서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보험사에 대해 건전성(지급여력비율) 규제의 책임을 지고 있음
 - 단, 해당 주에 등록된 보험회사수가 매우 많고 여러 주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보험사(주내보험사)에 특히 주력하여 감독을 수행
 - 통상 3~5년 주기로 지급여력 검사를 실시하며 특수한 경우에 특정 기업에 대해 더 짧은 주기로 검사
- 뉴욕주는 미국 전역에서 재무 건전성 감독이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
 - 매기 결산기에 각 사의 선임계리사가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*을 정리한 레터(Special Consideration Letter)를 발행하여, 이 기준에 맞추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
 - * 책임준비금의 충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산충분성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준비금/지급여력비율 관련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
 - 뉴욕주의 경우, 많은 항목에서 추가 시나리오 설정을 요구하는 등 더 까다롭게 감독하고 있고 다른 주와 달리, 주의(州外)보험사에 대해서도 주내(州內)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독
 - 따라서, 동일한 보험사라 하더라도 다른 주의 법정책임준비금과 뉴욕주의 법정책임준비금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